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EVA EVERGREEN, SEMI-MAGICAL WITCH

가제 : 초보 마법사 에바 에버그린

저자 : Julie Abe

출판사: Little, Brown

발행일: 2020년 8월 4일

분량 : 288 페이지

연령 : 10세 이상



* <마녀 배달부 키키> 등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분위기의 소설

* 능숙한 마녀가 되거나, 마법을 영원히 못 쓰거나 - 양 갈래 길에 놓인 열두 살 소녀 마법사의 성장을 그린 판타지 2부작, 첫 번째 이야기

마법사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신기한 마법의 힘은 곤란한 일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되는 세상에서, 마법사들은 능력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그랜드마스터는 왕국 최고의 마법사들만 얻을 수 있는 타이틀로, 이제 막 몸에서 마법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초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 역할도 맡게 된다. 평화로운 리벨 왕국에서 여자 마법사 중에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대가로 존경받는 벨라리티무스 에버그린의 딸로 태어난 에바는 당연히 엄마의 놀라운 능력을 물려 받았으리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형편없는 마법 실력 때문에 아예 마법사로 살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다. 열두 살이 지나기 전에 가장 낮은 '수련자' 등급에 진입하지 못하면 왕국의 마법 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마법사가 될 기회도 모두 사라지는데, 얼마 전 열두 살이 된 에바는 여전히 제대로 된 마법을 부리지 못하고 월 시도하기만 하면 실수만 연발했다. 일본의 느낌이 물씬 나는 상상 속 마법 세상을 배경으로 한 이 데뷔작에서 작가는 엄마처럼 유능한 마법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에바가 어설피고 연약한 마법사에서 어엿한 새내기 마법사로 변신하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다. 남들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과 잘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발견하고 진심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에바의 이야기를 통해 경쾌하게 전한다.

열세 살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초보 단계의 마법을 숙달해야 한다는 마법 위원회의 기준은 사실 그렇게 까다롭다고 할 수 없다. 그 초보 단계는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도움을 주러 찾아가 마을에서 최소 한 달은 머무르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집에 돌아올 때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서 와야 한다는 것이 전부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 마법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

들은 몸이 어느 정도 크고 손 끝에서 마법이 근질근질 발산되기 시작하면 에바의 엄마 벨라리티 무스와 같은 대가 밑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다. 마법이 처음 꿈틀대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에바의 경우 시작부터 조짐이 썩 좋지 않았다. 수련자 등급을 따내야 하는 최대 연령인 열두 살까지 1년 정도 밖에 여유가 없는 열한 살이 되어서야 마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필 엄마가 왕국 전체 마법사들이 앞으로 엄청난 마법사가 될 거라고 점 찍어둔 영재, 콘로이의 훈련을 맡은 바람에 잘난 척이 하늘을 찌르는 그 녀석과 훈련을 함께 받아야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범상치 않은 마법의 기운을 뿜어내며 열 살도 되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기술은 다 익힌 콘로이는 마법사 최고 등급인 그랜드마스터를 최소 연령인 열여섯 살이 되자마자 따내고 말 거라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반면 에바는 배우는 마법마다 엉뚱한 결과로 이어져 늘 난감한 상황에 몰리기 일쑤였다. ‘탄생 주문’을 익히기 위해 꽃밭을 만들어내야 하는 연습 마법에서 뜬금없이 양배추 밭을 만들어서 온 동네를 당황하게 만든 건 시작에 불과했다. ‘날씨 주문’을 배울 때는 비구름을 먼 곳으로 몰리쳐야 하는데 아예 천둥번개를 소환했고, 그밖에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실수로 많은 사람들, 동물들이 다치고 무수한 집과 물건들이 망가지거나 사라졌다. 유일하게 잘 하는 주문이 ‘수선 주문’인 이유도 워낙 고장 내거나 부순 물건들이 많아서 그 주문을 쓸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에바는 마법을 조금만 오래 사용하면 온 몸에 기운이 쭉 빠져서 쓰러져 잠들어버렸다. 이런 상황이니, 도움이 필요한 마을에 간다고 한들 과연 절박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마법 위원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에바는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콘로이 같은 오만한 마법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당당히 수련자 등급을 얻기 위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한다.

그림 같은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는 해안가 마을 오테리에 도착한 에바는 몸에 마법보다 일반인의 피가 더 많이 흐를지 언정 이곳에서 반드시 마법사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다짐한다. 능수능란하고 강력한 마법사가 오기를 기대했던 오테리 사람들은 ‘마법 수선 가게’를 차린 초보 마법사가 영 미덥지 않았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한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일까, 에바의 진심 어린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마법 능력과 에바의 인간적인 노력이 결합된 도움의 손길은 오테리 사람들의 삶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향상시킨다. 그러나 잠시 그 기쁨을 누리려는 찰나, 거대한 마법의 폭풍우가 오테리를 찾아오고, 에바는 부족한 실력을 있는 힘껏 끌어 모아 이제 가족처럼 사랑하게 된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다. 이 마지막 과제를 해내야 고마운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당당히 왕국에 돌아가 정식 마법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에바의 고투를 지켜보다 보면 꽃집에 가서 고장 난 스프링쿨러를 고치는 사소한 일부터 폭풍우에 표류하던 선박을 구조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해내는 일까지 해내는 에바의 성장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게 된다.

<저자 소개>

줄리 아베(Julie Abe)는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낮에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의 모험을 그린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SISTERS GRIMM
가제 : 그림의 딸들
저자 : Menna Van Praag
출판사: Transworld(UK) / Voyager(US)
발행일: 2020년 2월
분량 : 약 500page (예정)
장르 : YA 소설



- * 경매를 거쳐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확정된 3부작 시리즈
- * 서로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마법사의 네 딸들에 관한 삶과 죽음의 이야기

세상에 빛과 어둠이 처음 생겨나고 그 사이에서 인류가 처음 등장한 후, 그 어떤 생명보다 특별한 인간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진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싸움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승자가 판가름 나지 않은 채 아까운 희생만 늘어가자 양측은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한다. 선한 힘은 인간의 심장을, 악의 힘은 인간의 생각을 갖기로 하고, 그 힘을 발휘할 천사와 악마들이 지구로,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에 자리한 신비한 영역인 '에버웨어'로 신속히 흩어진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과 악의 협상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은 가슴보다 머리에 더 기대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천사들은 악의 무리들이 이런 사실을 이미 다 내다보고 모르는 척 협상에 임했다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무한한 행복과 기쁨의 길 대신 고통과 절망이 기다리는 길로 스스로 향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이 악의 힘에 휘둘리기 때문임을 다 아는 천사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법사이자 악의 무리에 속한 천상의 존재, 빌헬름 그림의 피를 물려 받은 아이들은 어느 인류와는 다른 운명을 갖게 된다. 태어나 18년 동안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18세 생일을 맞이한 후부터 선과 악 중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단 한 번 주어지는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아버지도 같고 태어난 날도 같지만 엄마도, 태어나 자란 곳도 모두 다른 네 자매 베아와 골디, 스칼렛, 리야나는 열여덟 살 생일이 가까워오자 이상한 변화를 감지한다.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수상한 존재의 눈길이 느껴지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 모두 경악할 만큼 이전까지 알지도 못했던 특별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네 사람은 서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자매이며 순백색 희망과 철흑 같은 욕망이 뒤엉켜 생겨난 결과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깨어 있는 세상과 꿈의 세상 사이에 자리한 또 하나의 세상, 에버웨어에서 태어났지만 지상으로 떠났고 원래 살던 곳이 어디인지조차 망각한 채 살아온 네 명의 자매는 도시 한 가운데서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난 문을 통해 그 신비한 영역으로 돌아가고, 그림의 딸이라면 모두가 맞닥뜨리는 선택 앞에 이른다. 선과 악,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선택도, 결과도 모두 각자의 몫이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 온 빌헬름 그림의 자손이 수백 수천 명씩 평범

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매력적인 전제로 시작되는 새로운 판타지 3부작의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작가는 우리가 그저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보기보다 강인한 존재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남들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불가능 한 것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어찌면 누구에게나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전제로 한 이 이야기에서, 그림의 딸들은 모두 네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토양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돌처럼 단단하며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처럼 굳건한 땅의 기운, 화약처럼 폭발적이고 빛처럼 매혹적이며 경계 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거센 불의 기운, 그리고 호수처럼 평온하고 파도처럼 무엇도 겁내지 않으며 바다처럼 깊은 물의 기운이 바로 그것이다. 처음으로 서로가 같은 핏줄임을 깨닫게 되는 네 자매 역시 이 가운데 한 가지 기운을 갖고 있고,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열여덟 살 생일이 가까워올수록 그 힘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겨우 열살이 된 남동생을 혼자 돌보느라 허름한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골디, 외모를 가꾸는 일에 여념이 없고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스킬을 즐기는 파일럿 지망생 베아, 꼬마 소녀일 때부터 범접할 수 없는 수영 실력으로 온갖 메달이며 트로피를 휩쓸었지만 비극적인 사고로 선수 생활을 너무 일찍 끝내야 했던 리야나, 화재로 부모님을 하루 아침에 다 잃고 그 충격으로 어릴 적 기억을 잃은 스칼렛까지, 개성 넘치는 네 명의 소녀는 모두 빌헬름 그림의 딸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내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각자의 능력이 스스로도 감당 못할 만큼 거세질 즈음, 네 사람은 에버웨어와 이어진 문을 발견하고 자신과 다른 자매들의 존재를 깨닫는다. 그리고 아직 어설픈 능력을 끄집어내 발전시키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고, 자신들을 소멸시키려는 적과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춘다. 언젠가부터 멀리서 지켜보던 눈빛은 바로 빌헬름 그림의 딸들이 갖고 태어나는 무서운 능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꾸려진 별의 전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자매를 앞장서서 없애야만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전사, 레오가 골디와 사랑에 빠지면서, 싸움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별의 전사들이 에버웨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었다. 달이 특별한 위치에 놓일 때, 어떤 해는 다른 해보다 문이 더 많이 열리고 또 어떤 해는 굳게 닫혀 있을 때가 많은 에버웨어로 가는 문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기에, 그림의 딸들을 보는 족족 없애는 신속함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의지가 필수였다. 18년을 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목숨을 그렇게 냉정히 빼앗았던 그에게 골디는 왜 꿈에까지 나타나며 그 누구와도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까? 그림 집안이 빼앗아간 소중한 것들을 되뇌며 살인마가 된 그와 골디의 얽힌 운명, 정해진 운명과 굳건한 의지를 하나로 결합하며 성장하는 네 딸들의 이야기는 뒤이어 발표될 3부작으로 이어진다.

<저자 소개>

멘나 반 프라그(Menna van Praag)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현대사를 공부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Men, Money & Chocolate』은 26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그밖에 End of 『Hope Street』, 『The Dress Shop of Dreams』 등 마법을 소재로 한 다섯 편의 소설을 썼다.